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TF 구성’ 정부 주도로 추진”

이재명 대통령 취임후 첫 광주 방문 시·도민 ‘타운홀 미팅’
주민·전문가·국토부 등 이해당사자들 참여 소음 등 조사
문제인정부 때 외면 ‘광주시민 1호 민원’ 사이다 해결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를 방문해 광주군 공항 이전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관련기사 2·3면>

특히 범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대통령실 내에 구성하라고 지시하고, 빠른 추진을 강조해 오랜 기간 답보 상태였던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인 정부와 이낙연 호남 총리 시절에도 진전이 없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취임 한 달도 안된 이 대통령이 강력한 해결 의지를 보인 셈이다.

광주 군공항 현안은 광주시가 전남 무안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무안군 등의 반대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광주·전남 최대 과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를 열고 광주군공항 이전문제와 관련, “주민과 외부 전문가, 국토부 등 이해당사자들이 함께하는 ‘6자’가 참여해 소음 등을 조사해 보자”고 제안했다.

광주 군 공항과 민간 공항 이전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꼽은 이 대통령은 “서로 적절히 타협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데도, 의견의 차이 또는 오해 때문에 나쁜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다”며 “허심탄화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고, 최종 결론은 나지 않더라도 해결책의 단초를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 수로부터 쟁점과 현안을 들은 이 대통령은 해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시의 추가 지원을 담보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며 “무안군이 기부대양여 사업의 직접 사업자로 참여해 금고 관리를 맡으면 신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소음 문제도 실제 전투기를 띄워 검증하면 된다”고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무안군수의 설명을 토대로 한 해법이었다.

김 군수는 “민간 공항 이전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당한 경험이 있어, 무안군은 광주시의 기부대양여 방식과 1조 원 추가 지원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며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피해 우려도 커 군민을 위해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을 마친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국가 단위에서 제가 책임지는 게 맞다”며 “광주시·전남도와 국방부·국토부·기재부 등을 포함한 TF를 대통령실에 꾸리고, 적절한 담담지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TF를 지금 구성하고,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제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외부 전문가 참여를

병행해 시행하자”며 “무안군이 우선 처분 이익 취득권을 갖고 정부가 일부 재정을 부담하는 방식도 일부 넣어서 함께 설계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져 해결해보겠다고 생각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는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가능한 시간 내에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광주 군 공항은 1949년 창설된 이후 도심 팽창 등으로 인해 이전 요구가 제기되어 왔으며, 2007년 무안국제공항이 개항하면서 무안 공항과 연계한 이전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러나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민간 공항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남도는 민간 공항 이전은 군 공항과 별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기에 무안군의 반대 여론도 강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다.

군공항 토론 후 이 대통령은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호남의 발전방안을 준비한 것 있냐”며 화제를 돌렸다. 앞서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해안 에너지 보고인 서남해안을 활용해 지역 발전을 하면 수도권 일극 체제 해결 가능해 보인다”면서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 새로운 방안을 같이 모색해보자”고 말했다.

이에 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국가산단 조성, 규제완화, 재생에너지를 활용가능한 송배전망 구축 등을 제안했다. 강 시장은 빛그린 산단(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102만평) 등 총 300만평 규모의 AI 모빌리티 신도시(에이모시티) 조성 계획을 밝혔고, 이미 완료된 AI 집적단지 조성에 이은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성 상황을 소개하고 무안 북부지역 국가산단 조성, 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 미래 첨단 산단 조성 등을 건의했다.

특히 지산지소(地産地消·전기가 만들어지는 곳에서 전기를 소비)가 이뤄지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걸림돌이 되는 전력 계통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당위성 보다는 실효적인 조치가 뭐가 필요한지, 정부에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특히 국가산단 조성에 대해 “엄청난 개발 비용이 들고 입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닐거 같아. 위험할 것 같고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광주군공항 및 호남권 발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격식 없고 유쾌한 분위기 ‘이재명식 소통’ 행보

유튜브 채널 생중계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에서 보여준 소통행보는 ‘이재명 다운’ 방식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행사장을 개방했고 참여하지 못한 국민을 위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송출했다. 격의없는 소통 방법으로 대통령을 마주한 시민들이 편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25일 오후 2시께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내부는 평소와 달리 많은 시민들로 붐볐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호남의 마음을 듣다’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음에도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고 싶은 시민들로 가득찼다.

이 대통령은 행사 중에도 격식을 내려놓고 소통만을 위한 행사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라며 자신이 대통령임을 강조하지 않았다. 이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대통령 엄청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다. (대통령은)충직한 국민의 일꾼으로 제1 시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일어서서 말해도 되냐는 김산 무안군수의 이야기에 “누워서 해도 되지만 서서 하시면 안된다”고 말하며 격의없는 편안하고 유쾌한 분위기로 소통행사를 주도했다.

행사장 입구 원편에 마련된 공간도 눈길을 끌었다. 4개의 테이블 위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제목이 적힌 A4용지 크기의 용지가 놓여있었는데, 시민들은 이 종이에 자신들이 바라는 사안을 적어 운영진에게 전달했다. 마치 소원 수리와 같은 방식으로 ‘청년농이 떠나지 않는 농촌을 만들어 달라’, ‘소상공인을 위해 최저임금 차등지급 등 유연성을 확보해 달라’는 등의 내용 등을 볼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소망을 대통령에게 전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입을 모았다. 양동시장에서 침구류를 판매하는 나재심(여·65)씨는 “딸이 HMM에 근무하는 데 아직 부산으로 이전할 준비가 안돼 조금 시간을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왔다”고 했고, 또다른 상인 김삼남(여·65)씨는 “양동시장 옆 광주전을 정계전처럼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려고 왔다”고 했다. 나씨는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직접 써왔다는 편지도 내보냈다.

청년층도 많이 보였다.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현다는(여·26)씨는 “광주에 여행을 왔다가 이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슨 얘기를 하려는 지 들어보려고 왔다”며 “고향이 전북이라 이 대통령의 호남 정책이 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 이재명 채널과 KTV 국민방송 채널을 통해 송출되면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지역민에게도 실시간으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호남 민심을 듣는 자리였음에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모으며 라이브 영상은 행사 종료 후에도 조회수 10만회를 넘어서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다시 윤빛 도는 피부
설화수 윤조에센스
Sulwhasoo